

신라 美勝考

여 성 구*

- I. 머리말
- II. 미힐의 진상품과 효소왕의 하사품
- III. 신촌의 지역성과 미힐의 신분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대영랑이 화랑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남변제일과 미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고, 앞서 살핀 남변제일에 이어서 미힐을 살핀 글이다.

효소왕대 미힐은 황금 100푼을 바치고, 관등과租 100석을 받았다. 반면 경덕왕대 대영랑은 白狐를 바치고, 관등만 받고, 곡물을 받지 못했다. 국왕의 하사품의 有無나 지급량의 차이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은 진상품의 가치, 왕의 성향, 시대 상황, 수급자의 신분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듯하다. 왕의 성향이나 시대 상황은 한정된 지면에서 논하기에 그 내용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칠 경향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진상품의 가치와 수급자의 신분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yeo8242@kookmin.ac.kr

미힐이 진상한 황금 100푼(12.5g)의 가치는 租 100석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租 100석은 彊首가 사지급(대사-소사)으로 복무할 때 받은 1년치 녹봉이었다. 미힐이 남변제일이라는 대사 관등을 받은 것을 보면, 4두품 이상의 신분이었다. 그리고 사지급의 1년치 녹봉에 해당하는 租 100석을 받은 것은 남변제일이 대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의 직무는 황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금광 개발이나 금광석의 제련술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한편 군현명을 쓰지 않고, 신촌만 써도 모든 이들이 알 정도라면, 父王 신문왕의 방문지였을 개연성이 높다. 신촌은 신라 중대 왕실과 친연성을 보이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의 거주지인 신촌은 금광산지이거나 그 주변이라고 생각되며, 신문왕이 순행시 방문해서 음악을 들었던 신촌과 동일한 지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촌은 금광산지와 향악이 있는 곳으로 비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주 주변, 소백산맥 이남에서 찾아보면, 금광과 향악이 있는 곳으로 안동·경산·울주·영천·의성·성주 지역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황금의 양에 비해 많은 곡물이 지급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대영랑, 남변제일, 효소왕, 금광, 향악

I. 머리말

美勝은 『삼국사기』에 단 한 줄 정도 언급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남변제일이라는 관등이 보이기 때문이다. 남변제일은 경덕왕대 大永郎에게도 주어진 관등이었다. 대영랑이 화랑인가를 밝히기 위해 우선 남변제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후속 글로서 본고를 준비하였다. 그러므로 대영랑과 비교하면서 논지를 펼치고자 한다.

앞서 남변과 유사한 표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변제일을 대사라고 보았다.¹⁾ 美勝에 대한 연구 역시 전무하다. 군공 포상을 제외하고 관등과 곡물 지급 사례는 그가 유일하다. 그 이유를 살피고, 나아가 미힐과 대영랑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남변제일이 ‘大舍’임을 보완하고, 대영랑의 화랑 출신 여부를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신라의 포상 유형과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미힐의 진상품과 그 대가로 지급된 관등과 곡물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수급자의 신분에 따른 포상품의 차이를 밝혀 미힐의 신분을 유추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미힐의 거주지를 통해 신분을 유추하고, 그것을 대영랑과 비교하는 방법을 취했다. 남변제일을 받은 美勝과 대영랑 자료를 분석하여 신분과 경제력 등 그 차이점을 밝혀볼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영랑의 出自에 대한 화랑설과 비화랑설을 검증해 볼 토대로 삼고자 한다.

1) 南邊第一에 대한 논고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면상 발표 예정인 논고만을 언급함을 양해바란다. 지금까지 남변제일은 미상 관직(관등)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에 第一을 ‘집 한 채’로 보기도 하고, ‘沙浪’이라는 구체적인 관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南邊을 南床, 南席, 南班과 같은 의미로서 신라 5관등제 중 4등관제에 해당하는 대사급(12위 대사와 13위 소사)으로 보고, 그중 최고 관등[第一]인 ‘대사’를 주목하였다.

II. 미힐의 진상품과 효소왕의 하사품

대영랑이 화랑인가?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우선 그가 미힐과 달리 곡물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서 시작할 수 있을 듯하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효소왕 8년(699) 新村 사람 美盼이 황금 한 덩어리를 얻었는데[得黃金一枚], 무게가 100푼[百分]이 되었다. (황금을) 왕에게 바치자, (왕은 그에게) 南邊第一의 지위를 주고 租 1백석을 하사하였다.²⁾

② 경덕왕 15년(756) 夏四月, 大永郎이 白狐를 바쳤으므로, 南邊第一의 벼슬을 주었다.³⁾

新村 사람 美盼은 699년 1백 푼(약 12.5g)의 황금을 바치고 그 대가로 남변제일(大舍)과 租 1백석을 받았다. 이로부터 57년 지난 756년 대영랑은 白狐를 바치고, 같은 관등만을 받았다. 대영랑이 미힐과 비교해 租를 받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진상품과 하사품의 차이, 거주지와 신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등과 곡물의 지급 사례를 정리하였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진상품과 하사품, 그리고 공훈과 포상의 내력은 <표 1, 2>와 같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간에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을 보면, 기록의 누락도 의심된다.

진상품으로는 진귀한 동식물과 광물이 있으며, 유형은 동물>식물>광물의 순이다. 유형의 각 사례는 嘉禾(8개)>赤烏(6)>白雉(5)>白鵲(4)>瑞芝(3)>白雀(2)>白鷹(2)의 순이다. 진상자는 州郡>개인>국가의 순이다. 신라의 경우, 지역별로는 주>군>현의 순이며, 古陞郡·武珍州·沙伐州·牛頭州·靑州 각 2회, 完山州 3회, 熊川州 5회의 순이다. 특히 백제의 땅이었던 完山州·熊川州의 진상 사례가 많은 사실은 주목된다.⁴⁾ 시대별로

2) 『삼국사기』 권8, 효소왕 8년조.

3) 『삼국사기』 권9, 경덕왕 15년조.

상대 9회, 중대 18회, 하대 9회로서 자료 일실, 기록 누락을 고려해도, 중대 왕실이 지방사회에 열려있었고, 다른 시대와 달리 많은 자료를 남겼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밖에 국가 공훈자나 사회기여자에게 特賜品을 지급했는데, 관등·곡물·가옥·토지 등 다양하였다(<표 2> 참조).

1. 황금과 白狐

상서로운 출생이나 동식물의 등장 사례는 중고기 이전에도 자주 보이며, 왕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곡물 1백석을 하사하였다.

③ (백제) 초고왕 48년(213) 가을 7월에 西部人 苐會가 흰 사슴[白鹿]을 잡아 바쳤다. 왕이 상서로운 일이라 하여 곡물 1백석을 주었다[賜穀一百石].⁵⁾

④ 訥祗麻立干 25년(441) 봄 2월, 史勿縣에서 긴꼬리의 흰 꿩[白雉]을 바쳤다. 왕이 기뻐하고 縣吏에게 곡물을 내려주었다[賜縣吏穀].⁶⁾

213년 백제인 苐會는 白鹿을 진상하고 곡물 1백석을 받았고, 441년 신라 사물현(현 경남 사천) 縣吏는 白雉를 진상하고 곡물을 받았는데, 그 양은 알 수 없다. 백제에서 1백석은 瑞物 진상에 대한 보상액의 관례였던 것 같으며, 그 시대적 연원은 3세기 초까지 올라가고 있다.

진상에 대한 보답으로 관등이나 곡물을 하사한 경우는 이상의 신라 3 사례, 백제 1사례 등 모두 4사례뿐이다. 이 외에 白鹿·白雉·嘉禾·瑞芝 등 상서로운 동식물을 진상했을 때, 곡물을 받은 사례는 기록 누락이 의심되나 일단 『삼국사기』 내에서는 없다(<표 1-2> 참조). 더욱이 곡물과 관등을 내려준 사례는 효소왕대 美黔의 기사가 유일하다.

4) 완산주는 嘉禾(효소왕), 白鵲(성덕왕·효성왕), 웅천주는 성덕왕대에만 3개(白鵲·瑞芝·金芝)를 진상, 원성왕·현강왕대에 赤烏와 嘉禾·각 1개를 진상하였다. 이들 지역이 백제의 고지였던 만큼 반신라적 지역정서를 만회하려는 모습으로 엿보일 수 있다.

5)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초고왕 48년조.

6) 위의 책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25년.

<표 1-1> 瑞物 진상과 포상(전거 : 삼국사기)

| 내역 | 시기 | 대상자 | 授位 | 賜(石) | 전거 |
|-----------|---------------|-----------|----------|-------|-----|
| 白鹿 | 213(초고왕 48) | 백제 西部人 苺會 | - | 穀 100 | 권48 |
| 白雉 | 441(눌지마립간 25) | 史勿縣 | - | 縣吏穀 | 권3 |
| 黃金 1백푼 | 699(효소왕 8) | 신촌인 미힐 | 남변 제일 | 租 100 | 권8 |
| 白狐 | 756(경덕왕 15) | 대영랑 | " | - | 권9 |

대영랑이 곡물을 받지 못한 이유로서 황금과 白狐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白狐가 황금보다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곡물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황금 100푼(1냥)은 대략 12.5g으로 사실 많은 양은 아니다. 고구려 부분노는 戰功의 보상으로 황금 30근과 말 10필을 받았다고 하는데(<표 2> 참조), 30근이면 6kg에 해당하는 양이다.⁷⁾

白狐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각 1사례씩 보이고, 일 반 여우 기사는 많이 전한다. 고구려 차대왕 3년(148), 왕이 사냥할 때 白狐가 따라오며 울어서 왕이 활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했는데, 무당이 “여우는 요사스러운 짐승이어서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니 덕을 닦으라.” 고 조언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또 백제 의자왕 19년(659) 2월에 여우 떼가 왕궁으로 들어 왔는데 白狐 한 마리가 上佐平 책상에 앉았다고 한다.⁸⁾ 이렇듯 고구려와 백제에서 白狐는 변란이나 멸망의 불길한 징조를 보이는 동물로 그려져 있다. 반면에 인용문 ③, ④의 白鹿·白雉는 백제와 신라 모두 신성한 동물로 생각한 듯하다. 白狐에 대한 고구려·백제의 부정적 인식은 신라에서도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대영랑에게 곡물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白狐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은 아닐 것이

7) 통일신라 1근(16량)은 약 200g이었다(이종봉,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2001, 195~200쪽). 현재 무게와 비교하면 1/3에 해당한다. 참고로 1490년 조선 성종 때 황금 1냥의 교환값은 면포 30필이었다고 한다(『성종실록』 권238, 성종 21년 3월 을축).

8)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차대왕 3년조 및 권26, 백제본기6, 의자왕 19년조 참조,

다. 그것을 잡았으니 더 한 포상을 내려야 당연하다. 그렇게 불길한 白狐를 잡았음에도 곡물이 빠진 관등 제수만 지급한 이유가 궁금하다.

<표 1-2> 포상품이 없는 사례(전거 : 삼국사기)

| 내역 | 시기 | 대상자 | 전거 | 내역 | 시기 | 대상자 | 전거 |
|----|---------------|-----------|-----|---------|---------------|---------------------|-----|
| 白雉 | 496(소지마립간 18) | 加耶國 | 권3 | 赤烏 | 810(헌덕왕 2) | 河西州 | 권10 |
| | 753(경덕왕 12) | 武珍州 | 권9 | 異鳥 | 678(문무왕 18) | 北原 (羽翮文脛毛) | 권7 |
| | 793(원성왕 9) | 奈麻 金惱 | 권10 | 靑牛 | 84(파사이사금 5) | 古陜郡主 | 권1 |
| | 801(애장왕 2) | 牛頭州 | | 一角 鹿 | 376(나물이사금 21) | 夫沙郡 | |
| | 810(헌덕왕 2) | 西原京 | | 六眼 龜 | 488(소지마립간 10) | 東陽 | |
| 白鵠 | 662(문무왕 2) | 南川州 | 권6 | 鯨魚 目 | 47(민중왕 4) | 고구려 東海人 高朱利 | 권14 |
| | 720.6(성덕왕 19) | 完山州 | 권8 | 朱豹 | 55(태조왕 55) | 고구려 東海谷守(尾 9尺) | 권15 |
| | 720.7(성덕왕 19) | 熊川州 | | 嘉禾 | 186(벌휴이사금 3) | 南新縣 | 권2 |
| | 739(효성왕 3) | 完山州 | 권9 | | 242(조분이사금 13) | 古陜郡 | |
| 白雀 | 691(신문왕 11) | 沙火州 | 권8 | | 294(유레이사금 11) | 多沙郡 | |
| | 715(성덕왕 14) | 菁州 | | | 452(눌지마립간 36) | 大山郡 | |
| 白鷹 | 677(문무왕 17) | 所夫里州 | 권7 | | 489(동성왕 11) | 백제 南海村人 (合潁禾) | 권26 |
| | 709(성덕왕 8) | 菁州 | 권8 | | 548(양원왕 4) | 고구려 丸都 | 권19 |
| 白猪 | 655(무열왕 2) | 屈弗郡(2身8足) | 권5 | | 697(효소왕 6) | 完山州 (異畝同潁) | 권8 |

| | | | | | | | |
|----|------------|----------------------|---------|----|---------------|-----|-----|
| 赤烏 | 20(대무신왕 3) | 고구려 扶餘國 (1頭2身) | 권 14 | | 880(헌강왕 6) | 熊州 | 권11 |
| | 785(원성왕 1) | 涇江鎮 | 권 10 | 瑞芝 | 708(성덕왕 7) | 沙伐州 | 권8 |
| | 790(원성왕 6) | 熊川州 | | | 724(성덕왕 23) | 熊川州 | |
| | 801(애장왕 2) | 武珍州 | | | 754(경덕왕 13) | 牛頭州 | 권9 |
| | 802(애장왕 3) | 歙良州 | | | 金芝 704(성덕왕 3) | 熊川州 | 권8 |

신라 중대·하대의 관등 지급은 軍功이나 왕즉위 때 特典으로 1급 승진이 있었다. 전자의 사례는 <표 2>를 참고할 수 있고, 후자의 사례는 성덕왕과 원성왕 때 보인다. 성덕왕은 즉위 2개월 후(702. 9), 赦免과 함께 文武 관인의 官爵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州郡의 1년간 租稅를 면제해주었다. 또 원성왕도 즉위 1개월 후(785. 2), 문무관의 官爵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당시 황금 1백푼이 租 1백석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668년 10월 22일, 고구려 정벌에 대한 軍功 포상시 誓幢幢主 金遁山은 사찬 관등과 함께 租 7백석을 받았다. 또 사찬에 준하는 외위 述干을 받은 軍師 南漢山郡 北渠와 부양현(平康) 仇杞는 각각 粟 1천석과 7백석을 받아, 미힐보다 많았다.⁹⁾ 이보다 앞서 661년 웅산성전 포상에서는 관등 제수만 있고, 곡물 지급은 없는데(<표 2> 참조), 그 배경에는 통일 전쟁을 마치지 못했고, 대고구려전에 군량이 필요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또 671년 당의 조운선을 공격해 전과를 올린 級浪 當千은 포상으로 沙浪으로 1급 특진했다.¹⁰⁾ 그러나 곡물 지급은 보이지 않는데, 기록의 누락인지 알 수 없다.¹¹⁾

9)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668) 10월 22일, “...誓幢幢主金遁山, 平壤軍營戰功第一, 授位沙浪, 賜租七百石. 軍師南漢山北渠, 平壤城北門戰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一千石. 軍師斧壤仇杞, 平壤南橋戰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七百石...”

1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671) 10월 6일, “冬十月六日, 擊唐漕船七十餘艘, 捉郎將鉗耳大侯, 士卒百餘人, 其淪沒死者, 不可勝數. 級浪當千功第一, 授位沙浪.”

11) 668년의 포상사례나 673년 強首의 기사(인용문 ⑤)를 보면, 이때 곡물 지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현물 보상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표 2> 군공 포상과 다산의 사례(전거 삼국사기)

| 내용 | 시기 | 대상자 | 내역 | 授位 | 賜(石) | 전거 | |
|-------------|---------------|--------------------|---------|--------|-----------------|------|----|
| 軍功 | BC9(유리왕 11) | 고구려 扶芬奴 | 鮮卑戰 | - | 黃金 30근 良馬10필 | 권13 | |
| | 661(문무왕 1) | 總管(각간·이찬) | 웅산성 전투 | - | 劍 | 권6 | |
| | | 總管(逆浪~大阿浪) | | - | 戟 | | |
| | | 아찬 이하 | | 一級승진 | - | | |
| | 668(문무왕 8) | 大幢 少監 本得 | 虵川戰 | 一吉浪 | 租 1000 | | 권6 |
| | | 漢山州 少監 朴京漢 | 평양성 內戰 | | | | |
| | | 黑嶽令 宣極 | 평양성 大門戰 | | | | |
| | | 誓幢 幢主 金遁山 | 平壤 軍營戰 | 沙浪 | 租 700 | | |
| | | 軍師 南漢山 北渠 | 평양성 北門戰 | 述干 | 粟 1000 | | |
| | | 軍師 斧壤 仇杞 | 평양 南橋戰 | 述干 | 粟 700 | | |
| | | 假軍師 比列忽世活 | 평양 少城戰 | 高干 | 粟 500 | | |
| | 漢山州 少監 金相京 | 虵川戰 전사 | 贈一吉浪 | 租 1000 | | | |
| | 671(문무왕 11) | 급찬 當千 | 唐조운선 공격 | 사찬 | - | 권7 | |
| 多産 | 193(벌휴이사금 10) | 漢祇部 女 | 4남1녀 | - | - | 권2 | |
| | 666(문무왕 6) | 婢 吉伊 | 세 쌍둥이 | - | - | 유사권2 | |
| | 670(문무왕 10) | 한기부 婢(親父 급찬 一山 추정) | 1녀3남 | - | 穀 200 | 권6 | |
| | | | | | 粟 200) | 유사권2 | |
| | 791(원성왕 7) | 熊川州 向省大舍妻 | 3남 | - | - | 권10 | |
| 798(원성왕 14) | 屈自郡 石南烏大舍妻 | 3남1녀 | - | - | | | |

승진과 함께 녹봉으로 대체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 | | | | | |
|----|-------------|------------------|-------|---|-------------------|--------------|
| | 814(헌덕왕 6) | 黔牟 大舍妻 | 3남 | - | - | |
| | 825(헌덕왕 17) | 牛頭州 大楊管郡 黃知 나마 妻 | 2남2녀 | - | 租 100 | |
| | 882(헌강왕 8) | 枯彌縣 女 | 3남 | - | - | 권11 |
| | 743(경덕왕 2) | 主力公宅牛 | 三犢 | - | - | 권9 |
| 孝行 | 755(경덕왕 14) | 웅천주 관적행 向德 | 부친 봉양 | - | 租 300 | 권48 |
| | | | | | 租 500+ 집·땅 | 유사 권5 |
| | 혜공왕 혹은 선덕왕 | 菁州 聖覺 | 모친 봉양 | - | 租 300 | 권48 |
| | 진성여왕대 | 韓歧部 知恩女 | 모친 봉양 | - | 租 500 穀 500+ 집 | 권48 유사 권5 |
| 興法 | 경덕왕대 | 금산사 | 왕의 수계 | - | 租 77,000 | 유사 권4 |

668년 군공 포상 기사를 보면, 租와 粟의 차등 지급 사실과 1급 승진이 아닌 5급 특진임을 알 수 있다. 사찬 김둔산은 租를 받고, 술간 복거·구기는 粟을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경위의 왕경인과 외위의 지방민을 구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粟을 받은 인물들의 출신(혹은 거주) 지역이 남한산주·부양군·비열홀주 등 지방이고, 租를 받은 한산주 소감 박경한·김상경 등은 왕경에게 파견된 인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지급량의 차이는 관동 高下나 참전 전투의 중요도와 치열함 등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특히 일길찬(7위)과 사찬(8위)은 한 단계의 차이뿐인데, 租 300석의 차등을 둔 것이나, 北渠와 仇杞가 같은 술간임에도 粟 300석의 차등을 둔 것은 관동의 高下보다는 전투의 치열함을 지급량의 우선순위로 정했던 것 같다.

군공 포상에서 특진 규정은 1급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661년 대백제 용산성 전투의 공훈에서 아찬 이하는 一級 승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668년 포상에서는 최소 5급 승격이었다. 대고구려 虵川戰에 참전한 本得(大幢 少監)과 金相京(漢山州 少監), 그리고 평양성 內戰에 참전한 朴京漢(漢山州 少監) 등 세 사람은 모두 관등 일길찬과 租 1천석을 받았다. 少監은 大監을 보좌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관등은 大舍 이하였다. 만약 이들 세 사람이 대사(12위)라고 보면, 5급 승격이었다. 661년의 공훈 포상에서 一級 승진에 그친 것에 비하면, 5급 승격은 파격적인 서훈이라고 할 수 있다. 671년 급찬 當千 역시 1급 승진해 사찬이 되었다. 뒤에 언급한 인용문 ⑧을 보면, 효소왕대에도 3급, 5급 승진의 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면 신라의 특진 규정은 1급, 3급, 5급이 있었던 것 같다. 한편 金相京은 전투 중 사망했기에 贈位한 것인데, 贈位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힐에게 지급된 租 1백석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사품인 租와 粟의 차이와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왕의 하사품은 황금·말·무기(劍戟)·집·땅 등 다양하나, 곡물은 주로 租와 粟이었다. 668년 군공 포상시 租와 粟에 대해서는 대체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皮穀이라는 것에는 일치하나, 벼와 조가 아닌 벼와 일반 곡물이라고도 한다.¹²⁾ 문무왕 때 禾를 米(精穀)와 租(皮穀)로 구분했음을 보면, 당연히 租와 粟은 별개의 곡물로서 벼와 조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¹³⁾ 당시의 禾는 대체로 발벼[陸稻]였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조선 정조대의 기사에 米와 租粟·稷·豆의 값을 비교하였는데, 이때 租와 粟을 구분하지 않고, 租粟이라고 하였다. 18세기말 租粟이 稷(기장)·豆(콩) 등과 나열된 것을 보면, 이때 租粟은 벼가 아니라 조를 말한 듯하다.

粟 혹은 穀이라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서로 다른 기록에서 그러한 추론도 가능했을 것이다. 670년 1년 3남를 출산한 한기부 婢에게 지급된 穀 2백석(삼국사기), 혹은 粟 2백석(삼국유사) 기록과 진성여왕대

12) 姜鳳龍, 「統一期 新羅의 土地 分給制度의 整備」 『國史館論叢』 69, 1996, 285쪽.

13) 『삼국사기』 권47, 列傳7, 裂起, “王命大角干金庾信, 輸米四千石·租二萬二千二百五十石.” 李弘植, 「三國史記의 ‘租’의 用法」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 『三國史記 研究論選集(國內編)』 제3집, 백산학회, 1985.

韓歧部 효녀 知恩에게 지급된 租 5백석(삼국사기), 穀 5백석(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다. 또 경덕왕대 향덕 기사에는 租 3백석(삼국사기)과 租 5백석(삼국유사)으로 지급량의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 707년(성덕왕 6)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자, 곡물을 지급했는데, 이 기록 또한 租(삼국유사)와 粟(삼국사기)으로 달리 기록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여기서 穀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곡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곡물에 따라 그 값이 다르므로 곡물 종류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무왕 때 租(벼)와 粟(조)로 구분했으며, 30여 년 이후인 효소왕대 또한 그러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租는 ‘新城租’(인용문 ⑤), ‘民租三年’(인용문 ⑧)처럼 세금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와 구별해 곡물의 의미를 드러내는 租穀, 租粟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新城租라는 표현을 보면, 신성에 세금으로 거둔 벼(租)를 말한 듯하고, 租粟은 세금으로 거둔 조를 말한 것이 아닐까 한다.¹⁵⁾

租 1백석은 粟으로 환산하면 얼마였을까? 고대의 1석 용량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연구자마다 시기 기준이 다르고, 1석은 약 30~90kg으로서 그 차이도 크다. 대체로 1석을 15두, 20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용적량에 차이를 보인다.¹⁶⁾ 참고로

- 14) 『삼국유사』 권2, 紀異2, 聖德王, “丁未正月初一日至七月三十日, 救民給租, 一口一日三升爲式. 終事而計三十万五百碩也” 및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聖德王 6년(707), “春正月, 民多饑死, 給粟人一日三升, 至七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 역주에는 이때 지급한 것이 조[粟]가 아닌 벼[租]라고 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http://db.history.go.kr/id/sg_008r_0040_0330).
- 15) 백제의 漢城租가 있는데, “전지왕 2년(406) 가을 9월, 解忠을 達率로 삼고 漢城租 1천 석을 주었다”(『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고 하며, 이것을 한성의 국가창고에 보관된 조세 수납미 중에서 1천석을 해마다 일정 기간 지급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양기석, 「경제구조」 『신편 한국사』 6, 2002, 198쪽).
- 16) 아래의 표는李宗峯의 논문(198~199, 215~224쪽) 참조하여 작성함.

<표 3> 1석의 부피과 무게

| 제설 | 신라 중대 | 고려 전기 | 무게(효소왕~경덕왕대) |
|-----|--------------------|-------------------|--------------|
| 15두 | 29,875.5cm(신문왕 이전) | 89,635.6cm(문종 이전) | 약 90kg |

조선시대에는 1석=15두로 삼았다. 만약 1석이 30kg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기에 담는 조[粟], 기장[稷], 콩[豆]의 무게는 전부 달랐을 것이다.租와 粟 1석의 무게(畝) 차이가 궁금한데, 후대로 갈수록 용적량이 늘어나 고려시대에는 콩은 미국의 1.5배 양이었다고 한다.¹⁷⁾ 한편 가격은 18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콩은 쌀의 반값(50%)이었다.¹⁸⁾

18세기말의 穀價를 7세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주저되지만 참고하면, 粟 1석은 租 1석의 40%로서 粟 1백석은 租 40석에 해당하고, 서당당주 사찬 김둔산이 받은 租 7백석은 粟 1,750석, 軍師 술간 북거가 받은 粟 1천석은 租 4백석, 軍師 술간 구기가 받은 粟 5백석은 租 2백석과 등가이다.

미힐이 받은 租 1백석은 18세기말의 가격과 비교하면, 粟 250석에 해당한다. 군공 포상액과 비교해 미힐이 받은 租 1백석은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상시국이 아닌 평상시의 1백석은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다.

| | | | |
|-----|---|-----------------------------------|-----------|
| 20두 | 朴興秀, 「新羅 및 高麗때의 量制度和 量尺에 대하여」 『科學技術研究』 5, 1977 ; 『度量衡과 國樂論叢』, 1980 | | 약 30kg |
| | 약 30,000㎖ | 약 30,000㎖(정종 이전) | |
| | 李宗峯, 「高麗時代의 量制」 『國史館論叢』 82, 1998. | | |
| | - | 44,817.79㎤(精穀), 59,757.05㎤(皮穀) | 약 45~60kg |
| | 呂恩暎, 「高麗時代의 量制」 『慶尙史學』 3, 1987. | | 약 40~45kg |
| | 약 40,000㎖(중대-고려초) | 약 45,000ml | |
| | 李宇泰, 「韓國古代의 量制」 『泰東古典研究』 10, 1993. 윤선태, 「신라 하대 양제에 관한 일시론」 『신라문화』 17·18, 2000. | | |

17) 통일신라의 1승의 용적은 200ml, 고려시대에는 신라보다 70% 증가하여 약 343ml, 조선 세종 28년에는 약 596ml 정도였다고 한다(李宗峯, 앞의 논문, 219~224쪽).

18) 『국역비변사등록』 169책, 정조 10년(1786) 10월 16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감사 徐有防이 비국에 보고한 사연을 본즉 ‘쌀값을 치는 법은 租粟 1석에 쌀 6斗를 가져오고, 稷 1석은 쌀 4斗를 가져오고, 콩 1석은 쌀 7斗 5승을 가져오는데, 쌀 1석 값은 아울러 5냥으로 하게 하면 각곡을 기준으로 치면 租粟값은 2냥이 되고, 稷 1석값은 1냥 3전 남짓이고, 콩 1석값은 2냥 5전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⑤ 强首는 中原京 沙梁部사람이었다. 아버지는 昔謚 奈麻였다. ... 강수는 일찍이 생계를 도모하지 않아서 집이 가난하였으나 즐거워하였다. 왕이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해마다 新城의 租 100석을 하사하도록 하였다. 문무왕은 “강수는 문장짓는 일을 맡아 편지로써 중국과 고구려, 백제 두 나라에 뜻을 다 전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우호 맺음도 성공할 수 있었다. 나의 선왕께서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였던 것은 비록 군사적 공로라고 하나 또한 문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강수의 공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사찬의 관등을 주고 녹봉을 늘려 해마다 租 200석씩으로 하였다. ... 신문대왕 때에 이르러 죽자, 장사 비용을 관에서 제공하였다. 보낸 옷과 물품이 매우 많았는데, 집안 사람들이 사사로이 하지 않고 모두 佛事에 맡겼다. 그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대신이 이를 듣고 왕에게 청하여 租 1백석을 하사하도록 하였더니 그 아내가 사양하였다....¹⁹⁾.

强首는 1년 녹봉으로 租 1백석을 받다가, 이후 673년 1월, 삼국통일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찬이 되고 租 2백석을 받았다. 租 2백석은 대략 사찬급에서 받았던 1년치 녹봉이었을 것이다. 반면 美勝은 租 1백석을 받았으니, 사찬급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사이에 26년의 간격이 있으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租 2백석은 군공 포상시 같은 사찬급의 술간 구기의 粟 5백석(≒租 2백석)과는 그 양이 같으나, 사찬 김둔산의 租 7백석, 술간 북거의 粟 1천석(≒租 4백석)과 비교해 적다.

강수는 무열왕(603-654~661) 때 처음 入仕하고, 신문왕(?-681~692)대까지 대략 20~30년을 문서 작성의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租 1백석을 받았을 때의 그의 관등이 궁금한데, 그의 아버지 昔謚가 생존해 있었다면 강수의 관등은 아버지의 관등인 나마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나마는 大舍(12위)의 바로 위의 등급인데, 조 1백석을 받았을 때 강수의 관등은 대사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미 사망했다면, 강수의 관등은 나마 이상일 수 있다.

강수는 임나가야인으로서 신라 조정에서의 입지에 일정한 한계를 가

19) 『삼국사기』 권46, 열전6, 强首.

졌고, 武功과 文功의 포상시 차등을 엿볼 수 있으므로 사지나 대사에서 4~5급을 뛰어넘어 사찬으로 초고속 승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추론해 보면, 租 1백석을 받을 때의 관등은 사지나 대사였고, 사찬이 되기 전의 관등은 급찬이라고 생각된다. 租 1백석은 5등관제 중 사지급(사지나 대사)이 받았던 1년 녹봉이고, 급찬까지는 租 1백석 이상을 받다가 사찬이 되면 租 2백석을 받았던 듯하다.

한편 강수가 죽고, 녹봉이 끊겨 그 아내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정부에서 租 1백석을 주고자 했는데, 이때 租 1백석은 功臣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던 듯하다. 이보다 앞서 660년 官昌이 전사하자, 賻儀로 租 1백석을 지급한 사례와 비슷하다.

租 1백석(≒粟 250석)은 670년 네쌍둥이 산모가 받은 곡물보다 많은 것이었다.

⑥-⑦ 文武王 10년(670) 6월, 漢祗部の 여인이 한 번에 3남 1녀를 낳아 粟 2백석을 내려주었다. ㉔ 인덕 3년(666) 병인 3월 10일, 한 집의 婢가 있는데, 이름이 吉伊였다. 셋을 낳았다. ㉕ 총장 3년(670) 경오 정월 7일, 漢歧部の 一山 級干<다른 곳에는 成山 何于[阿干的 오기]>라고 하였다>의 婢가 한 번에 넷을 낳았는데, 1녀 3남이었다. 나라에서 穀 2백석을 주어 포상하였다(『삼국유사』 권2, 紀異2, 文武王法敏).²⁰⁾

⑦ 헌덕왕 17년(825) 가을, 牛頭州 大楊管郡(회양군으로 비정)에서 黃知 奈麻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아서, 租 100석을 하사하였다.²¹⁾

⑥-⑦과 ㉕의 기사는 670년 네 쌍둥이(3남 1녀)의 출산 내용인데, ㉔의 『삼국사기』보다 ㉕의 『삼국유사』의 내용이 풍부하다. 『삼국사기』에는 산모를 漢祗部女, 『삼국유사』에는 漢歧部の 一山(혹은 成山)의 婢라고 하였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이 정확해 보인다. 두 사서의 차이로서 출

20) 위의 책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10년 6월, “漢祗部女人, 一產三男一女, 賜粟二百石.” 『삼국유사』 권2, 紀異2, 文武王法敏, “麟德三年丙寅三月十日, 有人家婢名吉伊一乳生三子. 總章三年庚午正月七(日), 漢歧部一山級干, 一作成山何于[阿干的 오기], 婢一乳生四子, 一女三子. 國給穀二百石以賞之.”

2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7년 가을조,

산 낱자, 粟 2백석과 穀 2백석이 보이고, 『삼국유사』에는 산모(婢)의 상전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일은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정월이고, 포상은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6월에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粟과 穀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粟 2백석은 네쌍둥이 산모에게 지급되었을 듯한데, ㉔의 세쌍둥이의 산모 吉伊에게는 지급 내용이 없다. <표 2>에서 세쌍둥이 이상의 다산은 문무왕·원성왕·헌덕왕대 각 2사례, 별휴이사금·헌강왕대 각 1사례가 확인된다. 이들 8개 기사 중 곡물이 지급된 사례는 네쌍둥이 출산인 670년과 825년뿐이다. 이것이 세쌍둥이와 네쌍둥이에 따른 차별을 보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나, 기록의 누락이 아닌지 의심된다. 吉伊 기사는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이다. 『삼국유사』에는 婢 吉伊와 漢歧部 婢의 출산 기사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 이 두 사람에게 각각 穀 2백석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쌍둥이의 친부를 기록한 경우는 모두 대사·나마의 관등을 소유한 자들인데,나마 이상에게는 곡물을 지급하고, 대사 이하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모가 婢인 경우, 친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882년 세쌍둥이를 낳은 枯彌縣女 또한 婢였을 개연성이 있다.

㉔에서 一然이 최소 2개의 자료를 참고해 상전의 2說(成山과 一山)은 언급하면서 네 쌍둥이의 친부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 일연이 참고한 기록 자체가 그러했을 것이나, 이것은 친부와 상전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급찬 一山과 아찬 成山은 형제간으로 생각되며, 관등의 고하를 보면 成山이 형, 一山이 동생이었을 것이다.²²⁾ 네 쌍둥이의 친부는 一山, 상전은 成山일 확률이 높다.

㉔은 奈麻 黃知(825)의 아내가 2남 2녀를 낳아 租 1백석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네 쌍둥이의 아버지 급찬 一山(670)에게 粟 2백석, 奈麻

22) 동생이 형보다 관등이 높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혜공왕대 768년 반란을 일으켜다가 滅族之禍를 당했던 일길찬 金大恭과 아찬 金大廉이 있다[『삼국사기』 권9, 혜공왕 4년(768), “秋七月, 一吉浪大恭與弟阿浪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

黃知(825)에게 租 1백석을 지급하였다. 18세기를 기준으로 보면 租 1백석은 粟 250석과 같은 값이다. 형평성을 고려하면, 一山은 50석을 적게 받은 셈이다. 상식적으로 관등이 높거나 왕경인이라면 더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女兒(2남 2녀)보다는 男兒(1녀 3남)를 선호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670년과 825년의 시대 상황이나 친모의 신분에서 원인을 추정해 보아야 할 듯하다. 군공 포상사례에서 粟은 지역민에게 지급했는데, 왕경의 婢에게 粟 2백석을 지급한 것은 산모가 婢라는 신분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덕왕대에는 지역민(黃知)에게 租 1백석을 지급한 이유는 산모가 5두품 이상의 신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마 黃知가 급찬 一山보다 더 받았는데, 그 이유를 150여 년이라는 시간차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산모의 신분은 지급량을 정하는데 주요 기준이 되었던 듯하다.

미힐에게 지급된 租 1백석의 가치는 강수가 문무왕대의 사지급이었을 때 받은 1년치 녹봉의 양이었고, 825년 나마 黃知의 아내가 2남2녀를 낳고 받은 양이었다. 관창의 장례 때 賻穀으로 1백석을 보내기도 했다. 효행의 대가로 받은 租 3백석이나 5백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략 200가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은 양은 아니었다. 租 1백석이 황금 1백푼보다 더 가치를 나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힐이 바친 황금의 양이 아니라 그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2. 효소왕과 경덕왕의 성향

즉위 特賜를 제외하고, 포상 유형은 진상·군공·다산·효행 등의 사례가 있다. 각 사례별 포상 규정은 정해진 것은 없는 듯하다. 군공 포상에서 671년 급찬 當千이 당 조운선 공격의 포상으로 사찬으로 1급 승진하나, 668년의 포상사례와 달리 곡물 지급이 없었다. 多産의 사례에서도 문무왕대 곡물을 지급한 선례가 있음에도 원성왕·헌강왕은 따르지 않았다. 이를 보면, 하사품의 지급 여부는 왕 개인의 성향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직하다.²³⁾

효소왕의 성향에 앞서 災異와 포상의 관련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재이의 극복 과정에서 백성을 위로하고, 치하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미힐에게 곡물을 지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에 기반한다. 효소왕 재위 4년(695)부터 701년까지 매년 災異가 발생하였다. 특히 미힐이 황금을 진상한 699년(효소왕 8)에는 4차례가 발생하였다. 앞서 지진(695.10), 가뭄(696.4) 등의 재이가 있었지만, 미힐에게 포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생한 孛星 출현(699.2), 동해 血色(699.7), 동해 水戰(699.9), 兵庫 鼓角自鳴(699.9) 등의 재이는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 변란·전란의 조짐으로 비쳤을 개연성도 있다. 실제 이듬해 5월 慶永이 모반을 꾀하다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황금 1백푼의 가치는 크지는 않았지만, 진상은 특별한 의미로 생각되었을 법하다. 한편 699년에 倉部의 사지급(租舍知, 司倉)을 설치하였는데, 미힐에게 조 1백석 지급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

효소왕은 미힐보다 앞서 국선 부레랑이 피랍되었다가 돌아오자,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한 적도 있었다.

⑧ 효소왕은 무게 50량으로 된 금과 은으로 만든 다섯 개의 그릇 두 벌과 摩納袈裟 다섯 필과, 비단[大綃] 3천 필, 쌀 1만 頃을 절(백률사)에 시주하여 대비보살의 은덕에 보답하였다. 국내에 크게 사면을 내리고 사람들에게는 관작 3급을 올려주고[賜人爵三級], 백성들에게는 3년간의 조세를 면제해주었다. 절(백률사)의 주지를 奉聖寺에 옮겨 살게 하였다. 부레랑을 봉하여 大角干으로 삼고, 아버지 大玄阿嚨을 太角干으로 삼았다. 어머니 龍寶夫人은 沙梁部 鏡井宮主로 삼고, 安常 법사를 大統으로 삼았으며, 창고(天尊庫) 관리 다섯 명은 모두 석방하여 관작을 각기 5급씩 올려주었다[賜爵各五級].²⁴⁾

23) 한편 공훈과 관련해 倉部의 부속 기관으로 賞賜署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은 功勳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상사서의 설치를 통해 신라는 전공포상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전공포상이 점점 제도화되었다고 한다(고창민, 「6~7세기 초 新羅 전공포상의 제도화와 정치적 함의」 『신라사학보 52, 2021, 31~32쪽). 국왕의 하사품에 일정한 규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대체로 상사서의 업무로 戰功·軍功을 위주로 해석될 뿐, 진상·多産·효행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석은 보이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의 내용은 <표 2>에서 빠졌는데, 國寶 琴笛의 회수 때 대대적인 포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이 내용을 정치 상황과 연계해 다양하게 해석하나, 이에 대해서는 별고가 필요할 듯하며, 여기에서는 포상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693년(효소왕 2, 7세) 국선 부례랑과 국보 琴笛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관작의 남발이라고 할 정도로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賜人爵三級’에서 ‘人’은 관등을 소유한 國人을 말한 듯하며, 천존고 관리에게도 5급 승진시켰다. 어린 왕으로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면과 세금 면제, 관리들의 1급 승진이라는 즉위 후의 특전보다도 더한 조치였다.²⁵⁾ 이러한 조치가 왕권의 정당성 확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효소왕은 포상에 관한 한 관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당대에 정국을 주도한 세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반면 경덕왕 때에도 재이가 있었다. 756년 4월 대영랑 이전에, 天狗가 땅에 떨어지고(748.1), 暴風(749.2), 우박[太如雞卵](754.4), 가뭄과 누리[旱·蝗](754.8), 우박[大雹](756.4) 등의 재이가 있었고, 이후에도 758년 7월 23일 사찰 16곳에 벼락이 치는 등 759년, 760년 각 1차례, 762년을 제외하고 761년~765년까지 매년 두 차례의 재이가 발생하였다.

상서로운 징조와 瑞物을 진상한 사례도 보인다. 主力公의 소가 송아지 3마리를 낳았고(743.3), 武珍州에서 白雉를 바쳤으며(753.8), 牛頭州에서 瑞芝를 바쳤는데(754.5), 이때 관등과 곡물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白雉와 瑞芝를 바친 특정인이 없었기 때문인지 궁금한데, 앞의 인용문 ④에서, 주현에서 진상한 경우, 縣吏가 곡물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볼 때, 특정인이 없음을 이유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793년 원성왕대,

24) 『삼국유사』 권3, 탐상4, 백물사조,

25) 부례랑의 父 大玄은 692년 9월 살찬(8위)이었고, 이듬해 5월 아찬(6위)으로 바로 태대각간(1위)에 임명되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만약 이 조치를 인정한다면, 699년 미힐이 받은 남변제일(대사)을 역산하면, 693년 미힐은 16위 小鳥에서 3급 특진해 13위 舍知(소사)가 되었고, 다시 699년에 1급 승진해 대사(남변제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801년 애장왕대, 810년 헌덕왕대의 서물 白雉 진상은 災異 직후 이루어 지나, 사례 또한 없다.²⁶⁾ 이러한 사실을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 瑞物에 대한 인식이 무뎠진 것으로 보이며, 災異와 포상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효소왕에 비해 경덕왕은 인색한 왕인가 싶기도 하나, 向德에게 租 3 백석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대영랑이 남변제일을 제수받기 한 해 전, 755년 봄 웅천주에 사는 向德은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굶주린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그 효행을 포상하여 租 3 백석과 집 한 채, 口分田을 하사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²⁷⁾ 경덕왕은 이때 일반적인 瑞物 진상보다 더 많은 하사품을 내리고 있는데, 瑞物보다 孝行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眞表로부터 보살계를 받고, 금산사에 租 77,000석을 시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경덕왕 역시 인색한 성격은 아닌 듯하며, 유교와 불교에 관대했음을 알 수 있다.

경덕왕이 향덕에서 지급한 선례대로 혜공왕(혹은 선덕왕)대에도 똑같이 聖覺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다. 후대 왕들은 선례를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했음은 인정해도 좋을 듯싶다. 그렇다고 관등과 함께 곡물을 지급한 효소왕대의 先例가 있었는데, 경덕왕이 그것을 무시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多産의 사례에서 문무왕대 곡물을 지급한 선례가 있음에도 원성왕·현강왕은 따르지 않았다. 혹 곡물 지급은 세쌍둥이는 제외하고 네 쌍둥이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추론해도 원성왕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원성왕대부터 자연재해가 빈번해 식량 사정이 여의지 않았음을 감안할 수 있다. 그의 즉위 은전에서 조세 면제는 없고, 1급 승진뿐이었다. 원성왕 재위 14년 동안 거의 매년 가뭄, 홍수 등 흉년의

2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元聖王 9年, “秋八月, 大風, 折木偃禾. 奈麻金惱獻白雉.” “哀莊王 秋九月, 熒惑入月, 星隕如雨. 武珍州進赤烏. 牛頭州進白雉.” “憲德王 秋七月, 流星入紫微. 西原京進白雉.”

27) 『삼국사기』 권48, 열전8, 向德, “王下教, 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若干, 命有司立石紀事以標之.”

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갔다. 816년(헌덕왕 8년) 170명의 농민이 唐의 절강성으로 건너가 구걸을 하거나, 흥덕왕대에는 입을 줄이기 위해 어린 자식을 생매장했다는 孫順설화가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진상품에 대한 하사품의 지급 여부는 왕 개인의 취향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시대 상황이나 수급자의 신분을 고려해야 할 듯싶다.

미힐은 신라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 서물 진상시 현물 포상은 드문 일이고, 더욱이 관등 지급은 군공 포상시에 보이는 현상이었다. 곡물 지급은 서물 진상 외에 <표 2>를 보면, 군공·多産·효행 등의 포상시에도 시행되었으나, 관등 제수는 군공 포상과 즉위 특전 외에는 매우 드물다. 관등 지급이 곡물 지급보다 더 큰 恩典이었다고 생각된다.

효소왕은 미힐의 황금 진상을 軍功에 견줄 수 있는 업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697년 7월 완산주에서 異畝同穎의 嘉禾를 진상했는데, 이때 하사품은 없었다. 嘉禾보다는 황금 1백푼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일까? 미힐이 바친 황금 12.5g의 가치에 비해 과한 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백푼을 1백량(1,25kg)의 오기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²⁸⁾ 지방인이었으나 粟이 아닌 租를 지급한 것도 12.5g 이상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황금인지 또 획득 과정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사 원문의 ‘得’이라는 표현을 보면, 우연히 黃金一枚를 주웠다고보다는 ‘한금줍다(큰 금덩이를 캐내다)’라는 말처럼 그것을 금광석 一枚를 캐내어 제련해서 100푼[重百分]의 황금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가 바친 황금은 금광석을 제련해 만든 순금을 말한 듯하다.²⁹⁾ 미힐은 금광 발견자였거나, 혹은 제련기술자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술 匠人이나 工人 중 책임자의 관등이 大舍였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것이 남변제일

28) 박홍국, 「신라 황금에 대한 소고-경주 및 인근지역에서 채취한 砂金을 중심으로」 『위덕대박물관총서』 제5책, 위덕대박물관, 2014, 6쪽.

29) 백제에서는 대외 교역을 위해 일정한 양(17.328g/兩, 13.92g/兩)의 금괴를 제작 사용했다고 한다(朴南守, 「益山 彌勒寺址 출토 金錠과 백제의 衡制」 『한국사연구』 149, 2010, 96~97쪽). 이를 보면, ‘黃金一枚’를 금괴[金錠]라고 볼 여지도 있다.

(대사) 관등과 租 1백석을 지급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로써 그의 거주지(출신지)인 신촌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금광산지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Ⅲ. 신촌의 지역성과 미힐의 신분

668년 군공포상 사례를 보면, 미힐은 租 1백석을 받았으므로 왕경인이거나, 部名이 아닌 村名을 쓰고 있음을 볼 때, 왕경인이 아닌 지방민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825년 大楊管郡 黃知, 즉 지방민에게 租 1백석이 지급되므로 租와 粟을 보고, 왕경인과 지방민을 판단할 수 없다. 한편 668년 軍功 기사에서 賜租의 租에 대해 “중앙의 관료조직체계에 편제된 관료군에게만 ‘租’를 지급한다”고 한 견해가 있는데,³⁰⁾ 이를 따르면 미힐은 관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 포상 외에 진상·다산·효행 사례에서는 관등 미소지자에게도 지급되어 군공 사례 외에는 이 견해가 적용되지 않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미힐의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며, 그 실마리를 거주지(혹 출신지) 新村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신촌의 위치 비정

신촌의 위치 비정에 앞서 新村이 미힐의 출생지 또는 거주지인지, 아울러 황금을 발견한 지역인지 전제되어야 할 듯하다. 통상 출생지가 그대로 평생의 거주지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 신라 중대 이후 이동과 이주가 빈번했던 만큼 두 곳은 다를 수 있고, 설령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황금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황금 1백푼의 상태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황금은 그 무게로 볼

30) 姜鳳龍, 「統一期 新羅의 土地 分給制度의 整備」 『國史館論叢』 69, 1996, 285쪽.

때, 금광석을 제련한 후 얻은 순금이었을 것이다. 1백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황금을 얻은 장소가 신촌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신촌은 황금을 바칠 때의 거주지는 분명하고, 금산지가 거주의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금산지 역시 거주지 신촌을 관할하는 군현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신촌은 『삼국사기』와 목간에 각 두 사례씩 4곳이 확인된다.

⑨ 「古記」에 이르기를, “政明王 9년에 新村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케 하였다”고 하였다.³¹⁾

⑩-㉠ 新邑縣은 본래 백제의 新村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保寧縣이다.³²⁾

⑩-㉡ 保寧縣은 본래 백제의 新村縣이다<한편으로 沙村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景德王 때 新邑으로 이름을 고쳤다. 溟城郡의 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초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³³⁾

위의 인용문은 『삼국사기』의 두 기록인데, 정명왕(신문왕)의 689년 新村 거둥 기사와 新村縣 기사이다. 신촌현은 경덕왕 때 新邑縣으로 바꾸었으므로, 효소왕 때에는 백제 지명대로 신촌현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기존에 신문왕이 갔던 신촌은 신촌현(보령) 외에 서원경(청주), 왕경의 신개척지(경주) 등으로 비정하거나, 달구벌 천도와 관련한 신도시로서의 獐山城을 들기도 한다.³⁴⁾

이 밖에 6세기 중반에 제작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중 ‘古陲新村’, ‘本波新村’이 확인된다. 이들 목간은 上州(沙伐州, 尙州) 일대의 촌락에서 거두어 함안으로 보낸 세금 품목 내역으로 추정한다. 古陲는 郡名 또는 행정촌명으로 보기도 하나,³⁵⁾ 지금의 안동 지역임은 분명하다.

31) 『삼국사기』 권31, 잡지1, 악조.

32) 위의 책 권36, 잡지5, 지리3, 웅주 결성군조.

33) 『고려사』 권56, 志10, 地理1, 양광도 홍주 보령현.

34) 정동락, 「689년(신문왕9) 新村공연의 새로운 이해-음악형식적 악곡구성과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신라학회 제204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2021년 9월 25일, 10~12쪽 참조.

本波新村은 판독의 異論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에 조심스럽지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³⁶⁾ 성산산성 출토의 목간에 보이는 지역은 현재 경북 북부지방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⁷⁾ 이들 외에 기록되지 않은 신촌은 더 있었을 것이나,³⁸⁾ 일단 신촌은 신문왕의 신촌, 결성군의 신촌, 고타군(안동)의 신촌, 本波(성주)의 신촌 등 4곳이 확인되고, 이 밖에 신촌을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결과로서 서원경(청주), 왕경의 신개척지(경주), 獐山城(대구) 등이 있다.

新村이란 지명 유래는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하나는 청주 옥산면 신촌리의 지명 유래를 보면, ‘새말’이라고 하여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을’이라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둘째는 ‘新’은 ‘새롭다’라는 의미가 아닌 사이[間]의 고유어인 ‘새’를 新으로 음차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역이 협소한 산골짜기 사이에 있는 고을을 ‘새골’이라고 하는데, 보령 川北面 河滿里 구새골 등 지금도 그러한 지명이 많이 있다.³⁹⁾

35) ‘古陲新村’ 외에도 古陲에 속한 촌락으로 伊骨村·伊骨利村·一古利村·密村 등이 보인다. 이 기록을 ① 郡名(城名)+ 행정촌, ② 행정촌+ 자연촌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촌 古陲의 자연촌이 新村이라고 풀이한다(홍기승, 「6세기 신라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와 ‘村」」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117쪽).

36) 이들 목간은 함안 성산산성-29(GY0028), 함안 성산산성-7-10(GY1991)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번호는 국사편찬위원회 분류번호(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목간자료)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체계(『한국의 고대목간II』, 예맥, 2017)를 말한다. 이 밖에 甘文本波에도 新村[함안성산산성-2(JJ1279)]이 있는 것으로 세 사람이 판독하고 있다(① 순환일(편), 『한국목간대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 ②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림』 41, 2012. : ③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이상의 판독 결과는 權仁瀚,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목간과 문자』 25, 2020. 29쪽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자는 미상 글자로 판독하고 있다.

37) 전덕재,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농사의 혁명」 『농업과 농민, 천하대본』, 한국문화사 27권, 국사편찬위원회, 2009, 53~54쪽.

38)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lxportal/mainSearch.html>)에서 신촌리를 찾으면, 36곳이 있는데, 경기도 2, 강원도 3, 충북 1, 충남 2, 세종시 1, 전북 3, 전남 4, 경북 10, 경남 9, 제주 1곳이 있으며, 경북·경남에 19곳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다. 안동에는 신촌리가 없다.

이 중에 후자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신촌 혹은 그 주변에서 金이 나온 것으로 본다면, 신촌은 골짜기에 자리했을 마을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⑩-㉔의 세주에 新村縣을 沙村縣이라고도 했다는 기록을 보면, 新=沙는 같은 음으로 읽혔던 것으로 생각되며, 고유어 발음은 ‘새’,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신촌은 사이촌[史伊村⁴⁰⁾]이라는 의미로서 마을과 마을의 사이[間, 中]에 있는 마을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함안 성산산성 목간 중에 ‘古陲密村沙毛稗石’(2007-29)을 주목할 수 있는데, 新村과 密村의 연관성을 예상할 수 있다. 密村 또한 ‘빽빽한[밀집한] 마을’이라는 훈역이 아니라, 밀>밀(아래)의 음차자로 보이기 때문이다.⁴¹⁾

미힐의 거주지인 신촌은 위의 4곳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⑨신촌과 ⑩신촌현(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일대)을 같은 곳으로 보기도 한다.⁴²⁾ 신문왕을 政明王이라고 한 표현은 ⑨의 기록 외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확인된다.⁴³⁾ 그 내용 중에, “신라 제31대 政明王의 즉위 원년(681)에 金官京이라 이름하고 太守를 두었다. 그로부터 259년 후에 우리 太祖가 통합한 뒤로는 대대로 臨海縣이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39)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문화관광>관광도우미>보령의 문화>지명유래>천북면 참조.

40) 『삼국유사』 권2, 紀異2, 孝昭王代竹吉郎조의 모죽지랑가에 “目煙迴於尸七史伊衣(눈돌이킬 새)”를 참고할 수 있다.

41) 密은 삼(三)[密波兮>三峴縣]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密村은 세 번째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촌은一村과 三村 사이의 二村이라는 추정도 해볼 직하다. 목간에서 古陲郡에서一村과 二村의 존재를 참고할 수 있다. 伊骨利村=伊骨村=一古利村이라고 추정하나(李京燮, 「금석문과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 『사학연구』 132, 2018), 伊骨村에는一村(伊骨一村, 一古利村)과 二村(伊骨利村, 二古利村, 伊骨二村)이 있었고, 伊骨村은 伊骨一村에서 ‘一’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42)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84쪽.

43) 『삼국유사』 권2, 紀異2, 駕洛國記, “國亡之後, 代代稱號不一. 新羅第三十一政明王即位開耀元年辛巳, 號爲金官京置太守. 後二百五十九年屬我大祖統合之後, 代代爲臨海縣, 置排岸使四十八年也, 次爲臨海郡或爲金海府, 置都護府二十七年也, 又置防禦使六十四年也.”

기록은 고려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⑨의 「古記」도 고려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삼국사기』에는 미힐의 기사에서 신촌 관할의 군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당대에는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신촌이라면 모두 알았던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그런 지역은 신문왕이 방문한 곳일 가능성이 있다. 신문왕이 신촌에 가서 음악을 들었다는 것은 551년 진흥왕이 순행시 娘城 河臨宮에서 우륵의 가야금 연주를 들었던 고사와 닮아있다.⁴⁴⁾ 특히 신문왕의 신촌 방문 시기가 달구벌로의 천도 계획이 있었던 시기와 같은데, 이와 관련한 지방 순행이 아닐까 생각된다.

신문왕이 신촌에서 연주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樂志에 수록된 것을 보면, 일반 음악 연주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달구벌 천도공역 관련 특별공연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⁴⁵⁾ 한편 신촌은 음악과 관련된 특별한 연주곡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삼국사기』악지에는, 18곡의 곡명 중 지역 음악[鄉樂]으로 5곡이 전하는데, 日上郡(경북 영주?)의 內知樂, 押梁郡(경북 경산)의 白實樂, 河西郡(경북 울주)의 德思內樂, 道同伐郡(경북 영천)의 石南思內樂, 北隈郡(미상)의 祀中樂 등이다. 이들 5악이 우륵의 12곡을 5곡으로 줄인 것과 같은 것인지 미상이나, 가능성은 있을 듯싶다.⁴⁶⁾ 또한 의성에서도 飛鳳曲·召文琴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지역 나름의 향악이 있었던 듯하다.⁴⁷⁾

4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551) 3월조.

45) 향악이 아니고, 궁중음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신촌에서의 공연은 총 7곡의 舞樂으로 이뤄진 모음곡으로서 筚舞는 도입부인 前奏曲(序曲), 하신열무~한기무는 제1부(막), 하신열무~미지무는 제2부(막) 등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정동락, 앞의 발표문, 9쪽).

46) 우륵은 계고(대나마)에게는 가얏고, 범지(대나마)에게는 노래, 만덕(대사)에게는 춤을 각각 가르쳤다. 그 후 이들은 우륵이 만든 12곡을 듣고는 “이 곡들은 번잡하고 음란하여 우아하고 바르지 못하다.”고 하며 5곡으로 줄여 버렸다고 한다(『삼국사기』 권32, 雜志1, 樂).

47) 申佐模(1799~1877), 『澹人集』 권8, 詩, 嶠南紀行, 草田景德王陵并序, “是日抵草田金上舍家, 主人言草田故召文國, 在飛鳳山下, 有景德墳. 宣廟時權草澗<文海>集(『대동운부군옥』; 필자주)中, 記召文國, 景德王陵在金城山下, 陵夷爲人耕種, 一田夫夢,

5악이 전하는 곳은 현재 경산·울주·영천 등 경주 주변 지역인데, 신문왕이 방문한 新村은 이들 지역 중 하나이거나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문왕이 소백산맥을 넘어 백제의 고지까지 행차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결성군의 新村縣과 별개의 지역으로 보인다.

신문왕의 방문지인 신촌으로서 목간의 古陁新村을 우선 주목할 수 있다. 『삼국사기』 소재 古陁郡(안동)은 古陀郡·古陁耶郡으로도 쓰였는데, 전체 고타군 관련 4개 기사 중 2개가 진상 기사이다. <표 1-2>를 보면, 84년 古陁郡主가 靑牛를, 242년 古陁郡에서 嘉禾를 바쳤다고 한다. 이 밖에 500년 소지마립간이 捺已郡(영주)에 파로의 딸 벽화를 만나곤 했는데, 당시 古陀郡에서 지혜로운 노파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또 661년 백제 達率 助服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古陁耶郡太守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⁴⁸⁾ 2개의 진상 기사를 보면, 고타군은 전통적으로 신라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힐의 진상 기사와 관련해 고타군의 進上 전통을 감안하면, 신문왕의 신촌 방문은 고타군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고타군은 안동 三太師로 상징되듯이 고려 초 고려 왕실의 대표적인 친정부 정서가 깃든 지역이었다. 「고기」가 고려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본다면, 굳이 신촌의 관할 군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6세기 중반의 목간 지명인 고타신촌이 7세기 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는 데에는 조심스럽다. 목간의 古陁와 『삼국사기』의 古陁郡이 동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古陁新村이 미힐의 거주지 신촌과의 동일 여부는 여전히 미상이다.

一老人稱大王，贈詩一絕。‘飛鳳曲終山獨在，召文琴古杳難聞，金陵往事憑誰問，千載猶存景德墳。’田夫目不知書，而能記誦此詩，無一字差，縣官報營，營門上于朝，特命守塚禁護，歲時降香以祭云。…”『여지도서』 하, 慶尙道 義城 古跡, 新增景德王墳에도 수록되어 있다. 13곡 중 美知樂은 의성군 丹密 지방의 음악이라고 한다(宋芳松, 「음악」 『신편 한국사』 8, 2002, 375쪽).

4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 9월조 및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9월도 참조. 백제 유민을 친정부적인 정서가 있는 지역의 태수로 임명한 사살은 주목될 수 있다.

신문왕의 방문지인 신촌은 향악이 전하는 곳이었으며, 미힐의 거주지 신촌은 인근에 금산지가 있는 곳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신촌은 향악과 금광이 있는 곳이고, 중대 왕실과의 친연성을 가진 곳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금광은 확인된 바 없고, 1469년경 경상도 지역에는 안동·봉화·함천·산음(산청)·함양 등이 있고,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조사된 곳으로 봉화·상주·성주·의성·김천·칠곡 등이 있다.⁴⁹⁾

4곳의 신촌과 5악이 겹치는 지역은 없고, 15~20C까지 금산지로 이어오고 있는 곳은 봉화뿐이다. 고타(안동)·본파(성주)에서 금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고, 보령(신촌현)에서도 금이 산출되나⁵⁰⁾, 신라시대로 올라가는지 알 수 없다. 5악에 들지 않지만, 향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의성에도 금광(비봉금광)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안동·성주·의령을 주목할 수 있을 듯하다.

이 밖에 신촌의 위치 비정은 美盼의 이름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신라인의 작명에서 죽령과 죽지랑처럼 출생지와 관련된 사례가 보이기 때문이다. 美盼의 ‘盼’은 신라 인명과 고구려·백제 지명에서 보인다. 인명으로는 福盼口(진평왕 妃 마야부인, 福勝葛文王의 딸), 首盼夫(진평왕대 梁宮 私臣), 末盼(뒤에서 언급함), 首盼買里(김지성의 女弟), 努盼不得(승려) 등이 확인되며, 남녀 모두 쓰고 있다. 福盼口·首盼夫는 중고기의 왕경인으로서 진골이었다. 중대에 술간 末盼은 지방이이었고, 首盼買里는 6두품 김지성의 여동생으로서 집안의 莊田에 세워진 감산사를 보면, 왕경인이었다. 在家僧 努盼은 창원지역 거주하고 있었는데, 왕경인 출신 여부는 알 수 없다. 지명으로는 주로 옛 백제 지역으로 武珍州에 豆盼縣 두 곳(① 豆盼縣>會津縣, 전남 나주와 ② 豆盼縣>薑原縣>荳原縣, 전남 고흥), 고구려 지명으로 漢山州 冬斯盼縣(>栗木郡, 과천)이 있다.⁵¹⁾ 福盼

49) 유승주, 「鑛工業의 生産形態」 『朝鮮前期의 商工業』, 한국사론 11권, 1982, 233쪽 :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60~62쪽.

50) 보령 백월산 점촌마을 금광터가 있고, 천북면 하만리 圓頭골의 滿里金鑛, 학성리의 鶴城金鑛이 확인된다(보령시청 홈페이지 www.brcn.go.kr>문화관광>관광도우미>보령의 문화>지명유래>천북면>河滿里 圓頭골).

51) 백제 武珍州 鎭山郡조(『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및 신라 무주 分嶺郡조(권36,

口 등 ‘旻’이 들어가는 인명을 보면, 대체로 왕경인 출신이 많지만, 지명을 보면 모두 지방이다.

美旻이란 이름은 고유어를 한자로 빌려서 쓴 것인데, 고유어를 추정해 본다면, 신라의 고유어 차자법을 참고할 수 있다. 6세기 중엽 訓主音從에서 8세기 중반 이후에 음차자 위주로 바뀌었다고 한다.⁵²⁾ 미힐이 7세기에 살았던 인물이므로 이 두 용례를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旻’이 고구려 지명(冬斯旻縣), 백제 지명(豆旻縣), 신라 인명(首旻夫 외) 등 삼국에서 모두 보이는데, 훈차가 아닌 음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旻’의 독음에 대해서는 향가와 지명의 용례를 근거로 하여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향가에 보이는 ‘旻’은 ‘乙’과 함께 ‘(으)ㄹ’ 말음(받침) 첨자라는 설이다.⁵³⁾ 美가 음차자라고 한다면, ‘미’라고 읽혔을 것이고, 따라서 美旻은 ‘미+을’, ‘미+ㄹ’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冬斯旻縣>栗木郡으로의 개명을 주목해 ‘旻=木’으로 풀이하여 ‘旻’은 고유어 ‘그루[木]’, ‘기르’의 음차자이고, ‘글’이라고 읽었다는 견해도 있다.⁵⁴⁾ 이를 따르면 ‘미그루’, ‘미기르’, ‘미글’이라고 읽혔을 것이다. 셋째, 豆旻縣, 冬斯旻縣 등의 지명에서 ‘旻’은 고구려어 표기인 ‘忽’의 표기로 추정되고, ‘꿀’로 읽힌다고 한다.⁵⁵⁾ 이 설을 따르면, 美旻은 ‘미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旻에 대한 연구는 향가와 지명의 용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실제 인명에 근거한 연구는 없는 듯하다. ‘旻’을 쓴 인명이나 지명을 보면, 福旻口를 제외하고, 首·努·豆·斯처럼 앞자에 받침없는 한자음이 자리하

잡지5, 지리3) 참조.

52) 李丞宰,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진단학보』 117, 2013, 179~184쪽. 신라의 고유어 표기법은 訓主音從과 末音添記를 든다. 훈주음종은 앞에 훈차자가 오고 그 뒤에 음차자가 덧붙는 표기법을 말한다. 말음첨기는 이두에는 없던 받침(말음) 표기법으로서 앞의 글자가 훈차, 음차 관계없이 두루 적용한다고 한다.

53) 南豐鉉, 「안민가(安民歌)의 새로운 해독」 『구결연구』 42, 2019, 41~42쪽.

54) 최범영, 「신라어에서의 외래 요소」 『한국전통문화연구』 15, 2015, 28~31쪽.

55)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 과천소개>어제와 오늘>지명 유래(과천의 옛 지명, 동사힐) 참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蛇福을 蛇巴라 하고, 弓福을 弓巴라고도 썼으므로 福勝口의 福은 바로 바꾸어 쓸 수 있을 듯하다. 이것을 보면, 인명이나 지명에도 ‘勝’은 향가에서의 사례처럼 ‘巴’ 대격 조사 혹은 ‘巴’ 말음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福勝은 ‘팔’, 首勝은 ‘술’, 努勝은 ‘놀’, 豆勝은 ‘둘’, 斯勝은 ‘살’, 美勝은 ‘밀’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인 중에는 借字한 인명을 다시 중국식으로 改名해 異斯夫를 苔宗, 居柒夫를 荒宗이라고 하였다. 首勝夫는 述宗 혹은 肅訖宗이라는 견해가 있고, ‘勝’과 ‘乙’을 치환하여 ‘首勝夫=首乙夫’라고 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⁵⁶⁾ 또 고구려 仇乙峴(굽을)=屈迁(황해도 송화군)의 변화도 참고된다.⁵⁷⁾ 美勝은 美乙 또는 首乙(夫)와 비교해 尾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美는 未, 味, 尾, 彌 등으로의 치환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명법의 사례 중 출생지만을 본다면, ‘미을(성)’을 주목할 수 있다. 美勝=美乙이라고 바뀌서 쓸 수 있을 듯하며, 다시 ‘未乙’로의 치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구려 지명에 未乙省이 있는데, 신라의 國原城(충주)이고, 지금은 味乙이라고도 한다.⁵⁸⁾ 혹시 이곳 태생이기에 이름을 未乙(美勝)이라고 했을 것이라는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충주가 진흥왕대(551년경) 신라에 편입된 이후 미힐의 생존시까지 10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고구려의 지명을 빌려 작명하였다는 사실은 수궁하기 어렵다.

56) 首勝夫는 585년(진평왕 7) 6등 아찬으로 양궁의 사신이 된 인물이고, 首乙夫는 588년 2등 이찬으로 노리부를 이어 상대등이 된 인물이었다.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 首乙夫=述宗(박남수, 「신라 중고기 花郎의 出身 家系와 花郎徒 운영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131쪽)과 ② 首勝夫=首乙夫=肅訖宗(全德在, 「桃花女鼻荊郎 說話의 形成 背景과 歷史의 意味」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40, 2019, 188쪽)이다.

57)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한산주조, “仇乙峴<一云屈迁>, 今豊州,” 『고려사』 권58, 지13, 지리3, 서해도 풍주조에는 ‘仇乙縣’이라고 하였다.

58)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한산주조에 “漢山州. 國原城<一云未乙省, 一云託長城>.”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충주목조, “忠州牧本高句麗國原城<一云未乙省, 一云麗長城>”

2. 美飡의 신분과 대영랑

국왕의 포상시 곡물 지급량은 수급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다. 대영랑은 남변제일만 받고,租를 받지 못한 경우도 그의 신분·재산과 관련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미힐과 대영랑은 남변제일을 받았지만, 이들이 동일한 신분증인지는 의문이다. 남변제일 大舍는 4두품의 최고 관등인 만큼, 이들은 4두품 이상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앞선 연구 중에 美飡을 지방 촌주와 연결해 본 견해가 있는데, “남변 제1의 관위는 지방 출신의 촌주 등에게 수여한 최고 관등인 沙浪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것이다.⁵⁹⁾ 촌주와 사찬의 연관성을 주목한 연구인데, 사찬이 아닌 大舍라고 했을 경우에도 촌주와 연관되는지 궁금하다.

촌주층을 포함한 외위를 받은 지방 세력은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외위제는 干群과 非干群으로 나뉘고, 간군을 골품제와 경위제에 준하여 나누어보면, 干群은 1등급 6두품(약간, 술간, 고간), 2등급 5두품(귀간, 선간), 3등급 4두품(上干, 下干)로 나뉘고, 4단계는 비간군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그중 남변제일은 3등급의 1위 上干(大舍)에 해당한다. 물론 효소왕대는 외위가 경위에 흡수된 때이지만, 대사는 차촌주에 해당하며, 미힐은 4두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 4두품 이상의 신분층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문무왕대에 지방세력이었던 未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美飡과 그 독음이 같아 주목된다.

⑪ 문무왕 8년(668) 6월 22일에 (웅진도독)府城의 劉仁願이 貴干 未飡을 보내, 고구려의 大谷(城)과 漢城 등 2郡 12城이 귀순하여 항복하였다고 알렸는데, 왕은 일길찬 眞功을 보내 축하하였다. 仁問·天存·都儒 등은 一善州(선산) 등 7郡 및 漢城州의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당나라 軍營으로 나아갔다.⁶⁰⁾

未飡은 668년경 웅진도독 유인원이 이끄는 나당연합의 고구려 정벌군

59) 전덕재, 「『삼국사기』 직관지의 원전과 편찬」, 『역사문화연구』 70, 2019, 71쪽.

6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조.

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당연합군이 평양으로 복진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되며, 이때 고구려의 2郡 12城이 유인원에게 귀순하자, 그 사실을 문무왕에게 알렸던 인물이다. 당시 그의 관등은 외위 4위 貴干이었고, 왕경인은 아니고, 지방민으로 보인다. 귀간은 경위 10위 대나마와 동급이고, 823년 흥덕왕대의 교서에 따르면 眞村主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170여 년 전인 문무왕대에도 未盼은 촌주이거나 지방의 유력자였을 것이다.

未盼(668년)과 美盼(699년)은 지금의 한자음으로는 같은데, 31년의 시차가 있는 이들의 활동 시기를 보면, 동일인일 가능성은 적다.⁶¹⁾ 또한 668년 10위 대나마에서 699년 12위 대사(남변제일)로 내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힐과 대영랑은 남변제일을 받기 전까지 관등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미힐이 4두품 이상의 신분이라는 사실 외에는 진전된 것이 없다. 다만 그 직무에 대해서는 촌주층 외에 기술층(匠尺층)이라는 추론을 추가해 볼 수 있다. 사실 검증을 위해 국왕의 포상사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곡물 지급량은 수급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진상·군공·다산·효행 등 포상의 사례는 中代에 집중되고 있다. 포상은 관등 승급과 곡물 지급으로 나타난다. 관등 승급은 1급이 일반적이며, 군공 포상시에는 5급 승진도 보인다. 곡물 지급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포상 유형 중 軍功 사례는 3개이며, 비교적 내용이 풍부한 668년의 사례를 보면, 첫째, 왕경인에게 租, 지방민에게는 粟이 지급되었고, 둘째, 관등이 높으면 곡물 지급량이 많았으며, 셋째, 동일 관등일 경우, 전투 참여도가 지급량에 영향을 미쳤고, 넷째, 少監(대사 이하) 이상이 지급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포상 유형 중 多産 사례는 소[牛]의 사례를 제외하면, 7개로서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친부 관등에 따른 지급량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첫째, 네쌍둥이의 경우 지급되었고, 세쌍둥이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61) 동일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30여 년 후 신촌인이라 한 것은 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왕경의 신개척지인 신촌에 거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정동락, 앞의 발표문, 12쪽).

둘째, 친부의 신분보다 친모의 신분이 지급량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친부 이름은 大舍 이상만 기록되었고, 奈麻 이상에게는 지급했으나, 大舍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다산 사례에서 곡물의 지급은 대사와 나마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관등을 기준으로 볼 때, 대사를 주목할 수 있을 듯하다. 군공에서는 곡물을 받았으나, 다산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힐은 軍功에 준한 것이고, 대영랑의 경우에는 多産 사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軍功 포상의 사례를 제외하고, 瑞物 진상의 포상으로 곡물과 관등을 받은 사례는 美黔이 유일하다. 693년경 국선 부레랑 납치, 국보 琴笛 분실과 이후 빈번한 災異 등 국가적 재난이 있었던 효소왕대에 그러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697년 완산주의 嘉禾 진상시에는 포상을 내리지 않았음을 볼 때, 효소왕에게 미힐은 軍功에 버금가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다. 진상품 嘉禾와 황금에 대한 효소왕의 분명한 입장을 보면, 황금 100푼의 가치를 높이 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부왕 신문왕이 신촌에 행차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촌은 父王의 거둥 지역으로 비정되는 만큼 아들 효소왕에게 특별한 곳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 출신(혹은 거주)인 미힐에게 관등과 곡물 지급이라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군공에 견줄만한 업적이라면, 금광 개발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대사는 장척층의 최고 관등이었다. 명활신성비(551)에는 匠人 1인(10위 彼日), 工人 3인(7위 下干支, 8위 一伐, 10위 彼日)이 보인다. 또 남산신성비 1비(591)에 匠尺 3인(모두 7위 干), 文尺 2인(11위 阿尺, 8위 一伐), 2비에는 장척 2인(6위 상간, 8위 일별), 문척 2인(8위 일별, 9위 一尺)이 보인다. 3비에는 문척 2인(13위 小舍, 14위 吉土)이 있는데, 장척은 보이지 않고 문척 위에 部監 2인이 있으며, 이들의 관등은 모두 12위 大舍였다. 이러한 6세기의 금석문을 보면, 축성기술집단으로 장척은 상간~일별까지, 문척은 一伐~阿尺까지 보이는데, 이들 기술층(匠文尺층)의 최고 관등은 6위 上干(京位 대사)이었다.

이를 통해 미힐은 금광개발자나 금광석 채련기술자일 개연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미힐은 남변제일을 받기 이전에 관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대사 아래인 小舍를 비정할 수 있다. 남변제일은 진급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租 100석은 대사급의 1년치 녹봉의 성격을 보인다.

대영랑의 경우 곡물 지급이 없는데, 다산 사례와 비교하면, 우선 친모의 신분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郎’은 직위가 높은 관리의 어린 자제를 부를 때 쓴 것이므로, 친모의 신분이 천민이라고 할 수 없다. 대영랑은 部名과 村名이 없으나, 왕경인으로 비정할 수 있고, 미힐보다 나이가 적거나, 집안 배경이 높았다고 추정된다. 어린 나이라면 화랑이거나 그에 준하는 진골 집안의 자제였을 것이다. 대영랑은 관등 미소지자였고, 그렇기에 租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영랑에게 제수된 대사는 그의 첫 관등이었을 것이다. 대사가 대영랑의 첫 관등이라면, 그를 화랑 출신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평균 9년의 國學 수학을 마치면, 나마(11위)나 대나마(10위)를 주었던 것처럼 화랑을 마치면 대사라는 관등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화랑의 초입사로의 관등은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좀 더 논증하고자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미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효소왕대 기사를 천착하였다. 먼저 남변제일(대사)의 관등과 租 1백석(3000~4000kg)의 지급은 진상품 황금 1백푼(12.5g)의 가치를 넘는 것이며, 황금 1백푼은 그 자체의 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광개발과 같은 큰 가치를 포함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미힐은 금광 개발이나 채련기술자였을 가능성도 추정해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남변제일이라는 관등은 그의 역할이나 직무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촌은 현재 기록상 보령·안동·성주 등에서 확인되나, 그 외 여러 신촌이 있을 것이다. 신촌의 지명은 ‘새로운 마을’, 또는 ‘골짜기 사이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금의 산지와 관련되었다면, 후자가 맞을 듯하다. 신촌은 일단 신문왕이 방문했던 곳과 같은 곳으로 비정되며, 달구벌 천도와 관련해 경상북도 지역에서 찾아야 할 듯싶다. 안동·성주, 그리고 의성도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신촌의 위치 비정을 통해 미힐이 지방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美黔=未乙로의 가능성을 엿보아 未乙省, 충주 국원성을 출신지로 비정해 볼 수 있으나, 고구려의 지명을 빌려 작명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미힐과 대영랑을 비교할 때, 대영랑에게 租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黃金과 白狐의 진상품의 가치나 왕의 성향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보다 신분·재산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신분과 재산은 관등의 소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지급량의 경우, 같은 유형의 사례라고 해도 신분에 따라 달라서 관등이 높을수록 많이 받았다. 多産의 사례에서는 산모의 신분도 고려했지만, 특히 군공 포상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대체로 곡물 수급의 대상자는 관등 소지자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관료였음을 볼 때, 대영랑은 관등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미힐은 이미 관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租를 내렸으나, 대영랑은 관등이 없었기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대영랑이 관등이 없고, 나이가 어렸다면, 화랑 출신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화랑 출신인 만큼 집안의 경제력도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대사라는 관등은 화랑에게 준 관등이고, 아마 화랑의 초입사로가 대사가 아닐까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4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澹人集』(申佐模 편)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이중봉,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2001.

姜鳳龍, 「統一期 新羅의 土地 分給制度의 整備」, 『國史館論叢』 69, 1996.

고창민, 「6~7세기 초 新羅 전공포상의 제도화와 정치적 함의」 『신라사학보』 52, 2021

權仁瀚,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목간과 문자』 25, 2020.

南豐鉉, 「안민가(安民歌)의 새로운 해독」, 『구결연구』 42, 2019.

박남수, 「신라 중고기 花郎의 出身 家系와 花郎徒 운영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朴南守, 「益山 彌勒寺址 출토 金鋌과 백제의 衡制」, 『한국사연구』 149, 2010.

박홍국, 「신라 황금에 대한 소고-경주 및 인근지역에서 채취한 砂金을 중심으로」, 『위덕대박물관총서』 제5책, 위덕대박물관, 2014.

宋芳松, 「음악」, 『신편 한국사』 8, 2002.

유승주, 「鑛工業의 生産形態」 『朝鮮前期의 商工業』, 한국사론 11권, 1982.

李京燮, 「금석문과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 『사학연구』 132, 2018.

李丞宰,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진단학보』 117, 2013.

李宗峯, 「高麗時代의 量制」, 『國史館論叢』 82, 1998.

전덕재, 「『삼국사기』 직관지의 원전과 편찬-외관과 패장진전, 외위, 미상관계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0, 2019.

全德在, 「桃花女鼻荊郎 說話의 形成 背景과 歷史의 意味」,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40, 2019.

전덕재,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농사의 혁명」, 『농업과 농민, 천하대본』, 한국문화사 27권, 국사편찬위원회, 2009.

정동락, 「689년(신문왕9) 新村공연의 새로운 이해-음악형식적 악곡구성과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신라사학회 제204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2021년 9월 25일.

최범영, 「신라어에서의 외래 요소」, 『한국전통문화연구』 15, 2015.

홍기승, 「6세기 신라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와 ‘村」,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인터넷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www.itkc.or.kr/main.do>)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lxportal/mainSearch.html>).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

A Study on Mihil in Silla

Yeo, Sung-gu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Is Daeyeongrang(大永郎) is Hwarang? In order to clarify this, it was necessary to understand Nambyeonjeil(南邊第一) and Mihil, and it is an article that examined Mihil after Nambyeonjeil.

Mihil during the King Hyoso gave 12.5grams of gold, received an official rank and about 4 tons of rice, while Daeyoungsang during the King Gyeongdeok gave white foxes, received only an official rank, and did not receive grains. The background or 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king's subordinate goods or the amount of payment can be inferred through the value of the genuine goods, the king's tendency,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the status of the recipient.

The king's tendency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s tend to be biased toward diverse and subjective interpretations because they are discussed in limited fields, so this study focused on revealing the value of the products and the status of the recipients.

The value of the 12.5g of gold that Mihil dedicated was far less than about 4 tons of rice. About four tons of rice was a year's wage that the Kangsu(强首) received when working as the Saji grade(舍知級).

Mihil was more than 4th dupum(頭品) in his position, given that he received the Daesa(大舍) of Nambyeonjeil. And the fact that the rice received about 4 tons of rice equivalent to a year's worth of rice is

confirmed that NambyeonJeil is the Daesa(大舍). His duties are thought to be unrelated to gold,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gold ore or smelting of gold ore.

On the other hand, if everyone knows even if they use Shinchon without using the county names, it is possible that the father Shin Mun-wang visited the area.

His residence, Shinchon, is thought to be a gold mine or a surrounding area, and it seems to be the same area as Shinchon where the king visited the area and listened to music.

Therefore, Shinchon will be able to be regarded as a place where there is a gold mine and local music. Looking around Gyeongju and south of Sobaek Mountains, it is estimated that it is one of Andong, Gyeongsan, Ulju, Yeongcheon, Uiseong and Sungju areas where gold mines and local music are located. This will reasonably explain why many grains were paid compared to the amount of gold.

keywords :

Daeyeongrang, Nambyeonjeil, the King Hyoso, gold mine, local music

